[보육교사 인권교육]

제8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리

2021. 10. 22.(금) 16:30 ~ 18:30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BUSA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보육교사의 권리

어린이집에서 권리의 주체는?

인권의 보편성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지닌 남과 똑같은 권리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타인의 인권은 나의 인권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권리?

- 기본권 :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
- 교육권 : 자율권, 영유아 교육을 위한 지원, 전문성 향상
- 노동권 : 임금, 근무 시간, 휴가, 휴게, 근무 환경, 고용안정, 복지 등

언제 교사의 권리가 존중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

교사의 권리는

왜 존중되지 못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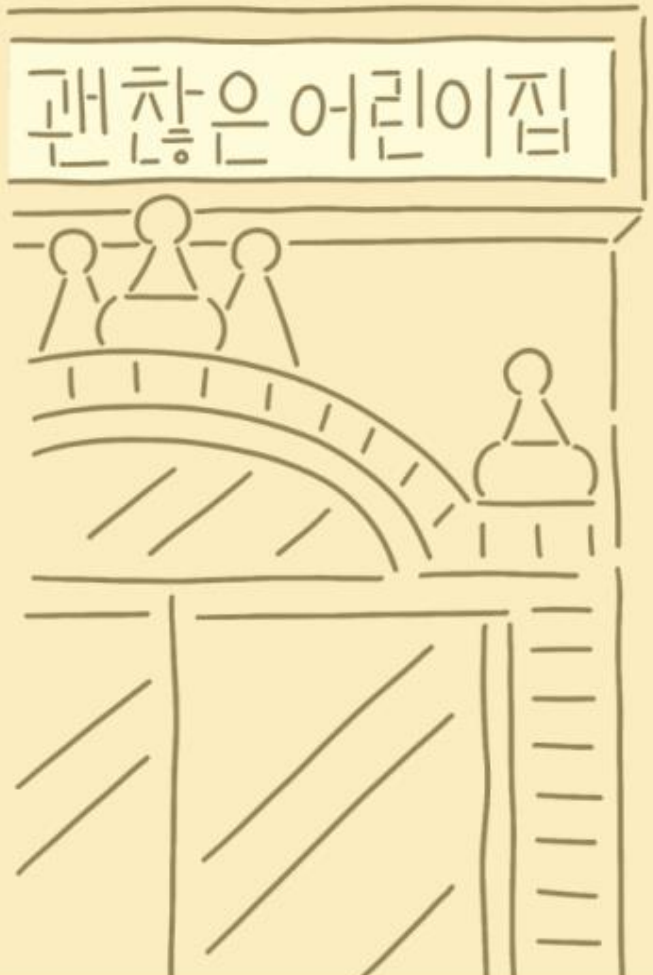
어떻게 존중될 수 있는가?

다음 사례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나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처음 보육교사가 되었을 땐,
아이들을 만날 꿈으로 가슴이 설렜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지키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꿈은 꿈이었다.
매일같이 나를 관통하는 차가운 시선들. 원장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점점 두려워졌다.

"선생님은 어릴 때
아이큐 검사 안 했나?
이걸 기억을 못 해?"

"그런 놀이를 왜 시키죠?
다른 놀인 없나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아이들을 돌볼 때는 바짝 긴장했다.
나 혼자서 맡아야 하는 아이들이 10명이 넘었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원장은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렸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문제가 생기자 원장은 CCTV를 틀어놓고 내가 앉은 자세까지 지적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어떤 학부모들은 내가 교사라는 걸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돌아온 후에도
퇴근은 불가능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 작성도
모두 내 몫으로 떨어졌다. 새벽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잠든 날도 있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보육을 합니다.
보육교사가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노동을 존중해 주세요.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려면?

CCTV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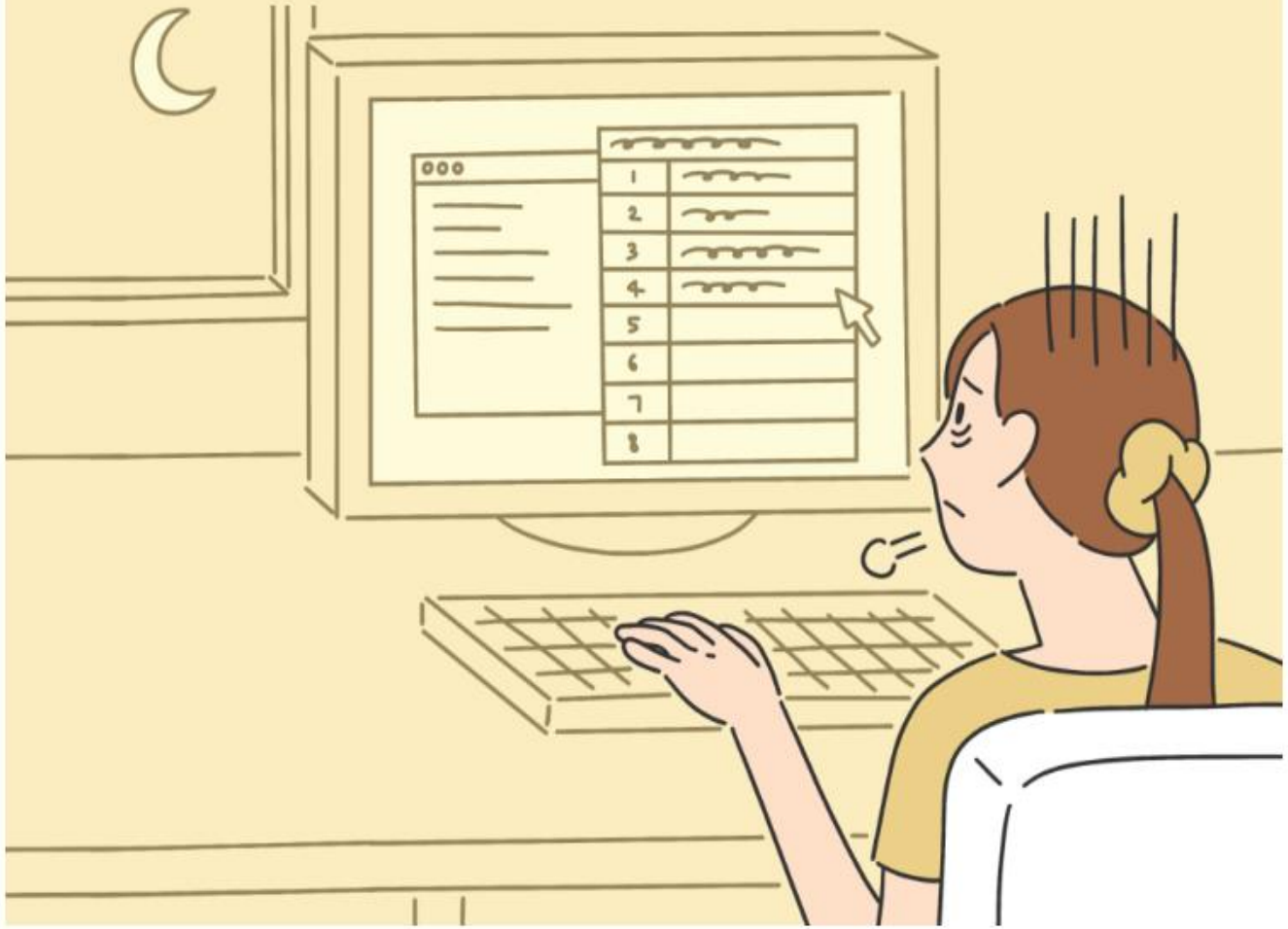
아이들을 돌볼 때는 바짝 긴장했다.
나 혼자서 맡아야 하는 아이들이 10명이 넘었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원장은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렸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CCTV 카메라를 신경 쓰며 자세를 바로잡고
아이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입술 근육이 떨렸다.
아이는 날 보고 마주 웃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부서진 기분이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돌아온 후에도
퇴근은 불가능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류 작성도
모두 내 몫으로 떨어졌다. 새벽까지 집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잠든 날도 있었다.



교사의 업무량 줄이기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요?

주간보육계획안 - 1주에서 2주 이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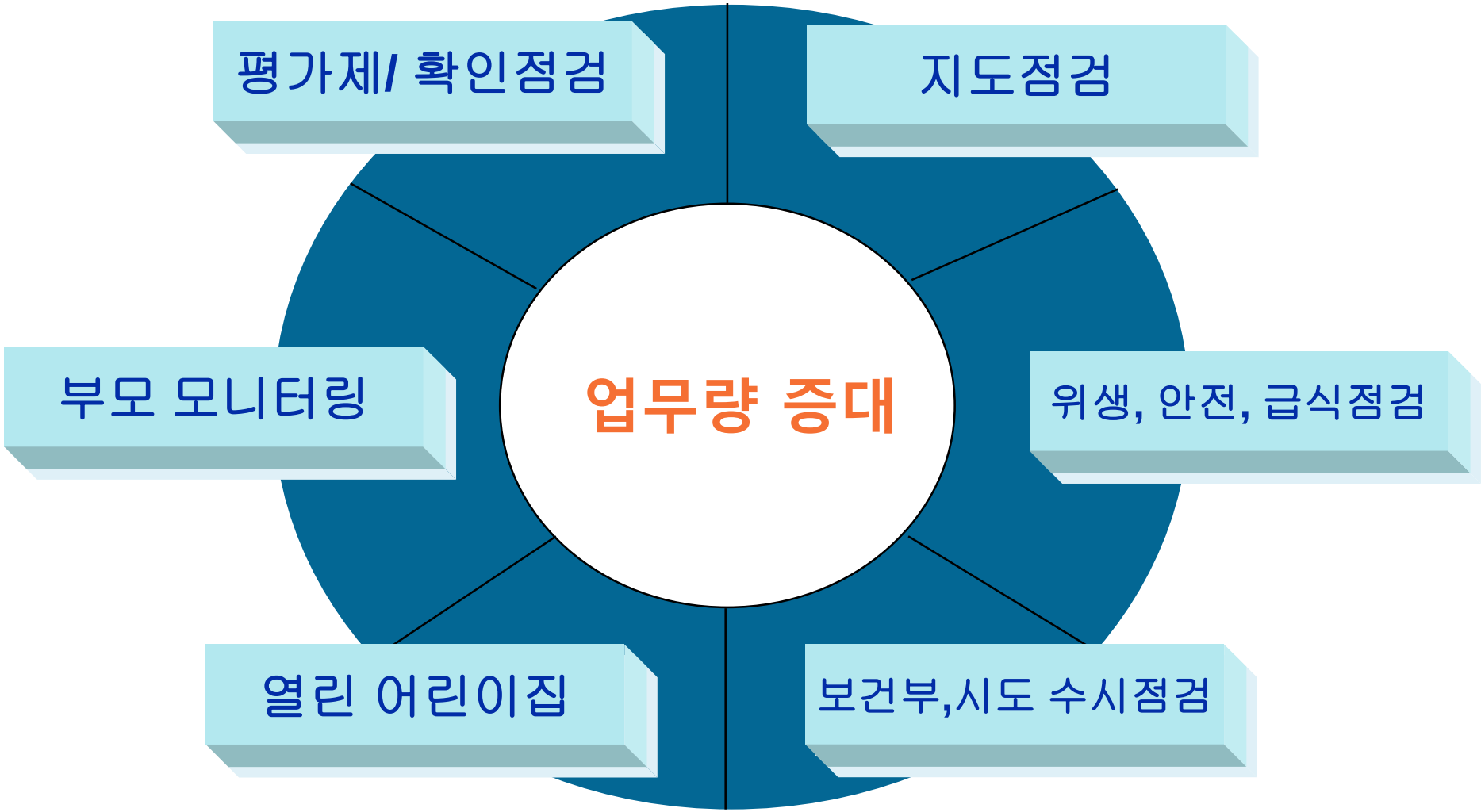
여유 있는 운영으로 보육과정의 질 높아짐

중복 기록 축소하기 : 일지, 대화수첩, 관찰기록

행사 준비 간소화

청소 인력 배치

업무량 감소는 관리 체계 간소화부터



각종
의무교육

교사의 휴식과 휴게 공간

교재실에 마련한 소파

리모컨
기저귀 갈이대

바퀴 달린 의자

성인용 소파 (일본/ 뉴질랜드)

Whetū Kamokamo
Whetū kamokamo
Kānapanapa, kōhikohiko
Kekokeko, kimokimo
I a Ranginui e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꿈은 꿈이었다.
매일같이 나를 관통하는 차가운 시선들. 원장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점점 두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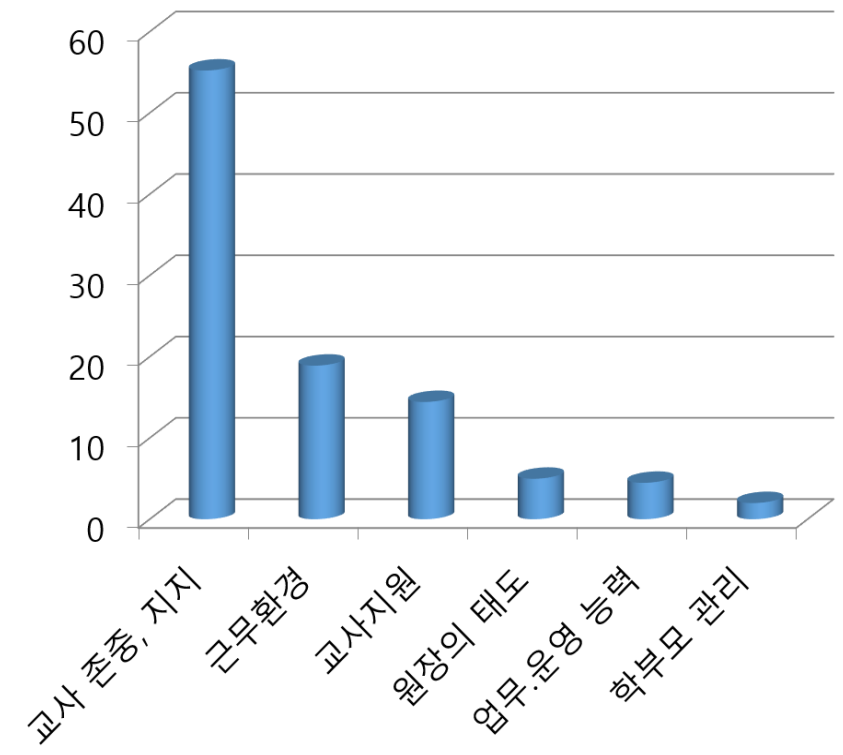
"선생님은 어릴 때
아이큐 검사 안 했나?
이걸 기억을 못 해?"

"그런 놀이를 왜 시키죠?
다른 놀인 없나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어떤 학부모들은 내가 교사라는 걸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이 누나한테 얘기하면 돼,
알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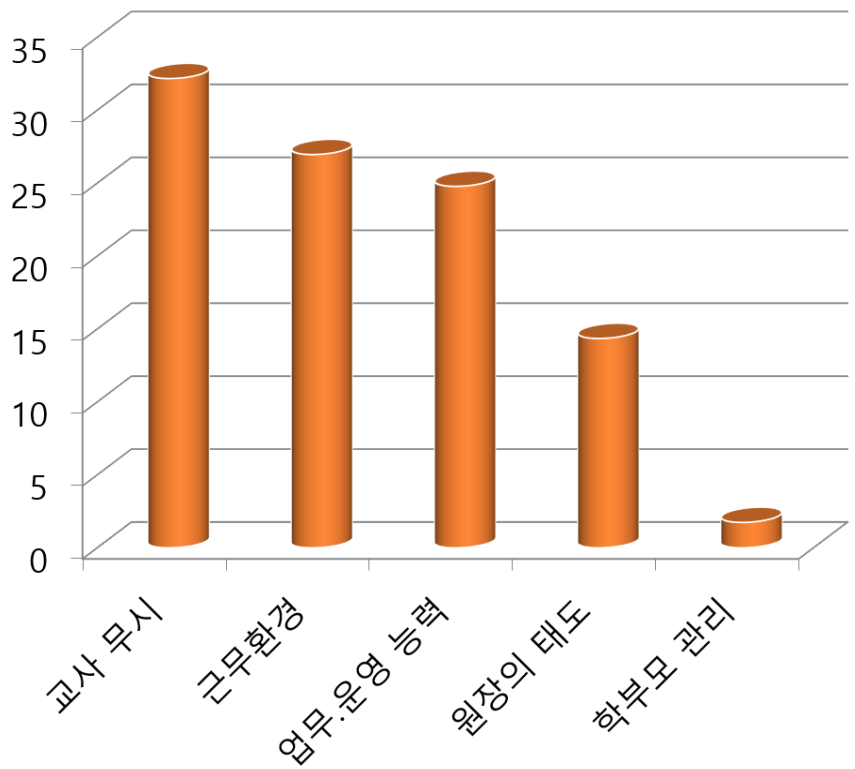
교사에 대한 존중

원장님, 이럴 때 좋아요~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님, 이것만은 제발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꿈은 꿈이었다.
매일같이 나를 관통하는 차가운 시선들. 원장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점점 두려워졌다.

"선생님은 어릴 때
아이큐 검사 안 했나?
이걸 기억을 못 해?"

"그런 놀이를 왜 시키죠?
다른 놀인 없나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개정 누리과정 적용

다양성 인정/ 자율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기

공모전 OR 연구주제 자율 (나의 실천에 도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CCTV 카메라를 신경 쓰며 자세를 바로잡고
아이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입술 근육이 떨렸다.
아이는 날 보고 마주 웃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부서진 기분이다.

감정노동

일을 수행할 때 업무나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표현하면서 행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어린이집의 감정노동은 언제?

영유아를 보육할 때

부모를 만날 때

원장과 동료보육교직원을 대할 때

과도한 감정노동은 언제?

고객, 승객,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발생

관련문제

과도하게 **노동자의 감정보다 고객의 기분을 중요시하여** 문제가 발생

감정 노동 문제의 예방과 극복

-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 분위기 변화

- 내 권리와 자유가 존중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타인을 존중해야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 사회 전반에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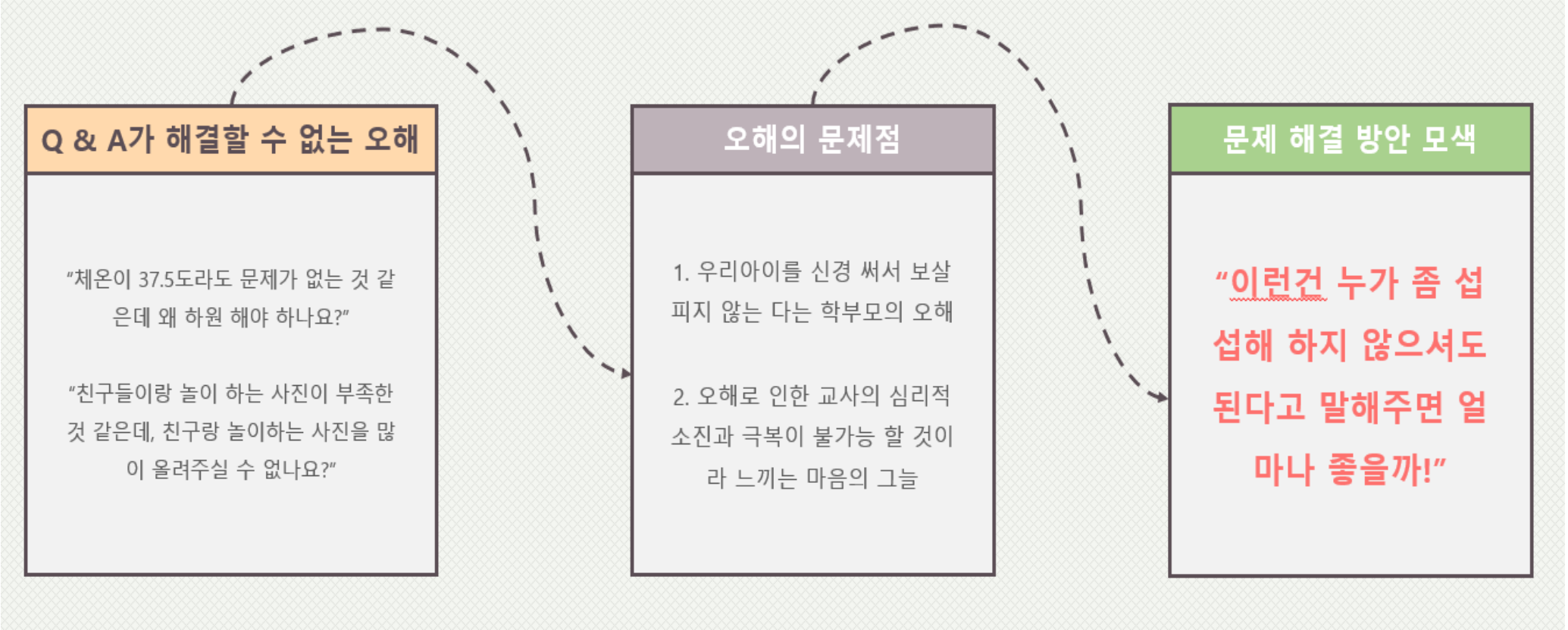
-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임

어린이집 해결 사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보육교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어린이집] 공모전 수상 사례

“서운해 하지 마세요 " (선재 어린이집)



이럴 때가 있어요~ 서운해 하지 마세요~

① **어린이집에 전화하셔서 아이의 반이나 성은 말씀 안하시고 이름만 이야기하시면 다시 되묻게 되는데 이럴 땐 화내시거나 우리 아이 이름도 모르나 서운해 하지마세요~**

→ 같은 이름이 많아요~ "00반, 000라고 성 까지 꼭 이야기해주세요.

② **체온이 37.5도 이상 일 때 하원 전화 드려도 서운해 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니 이해해주세요.

③ **하원 때, 하루일과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도 서운해 하지 마세요~**

→ 하루일과에 대해서는 키즈 노트에 올려드리고 있고, 교실에 보육해야 하는 다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긍정적 결과

- 학부모님들의 의견 -

A 학부모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콕! 찝어서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B 학부모님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C 학부모님

작년에 생긴 어린이집이다 보니 서툴 수 있겠거니 했는데 세심하게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짜주셔서 거부감 없이 잘 검토하고, 만족했습니다.

D학부모님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점이나, 자세한 예시를 해주셔서 금방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도움 주셔서 좋았습니다.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사의 참여

교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여행 or 공연

육아기 교사 다수 : 프로그램보다 빠른 귀가

문제해결 사례 1

평가인증과 초과근무수당

문제해결 사례 2

여름철 물놀이

영유아를 위해 자주 물놀이를 해야 하는가?

교사를 위해 가끔씩 물놀이를 해야 하는가?

문제해결 사례 3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를 연장보육 실시와 함께 조기 퇴근으로 사용

문제해결 사례 4

내가 원하는 반 : 반 배정

보육교사의 권리 문제 해결

정책적 해결

원장이 할 일

교사가 할 일

감사합니다